

**北에서 보낸 ‘아태평화대회 북측 참석자 공문’에도 리호남은 없었다!**  
- 김성태를 숙주로 한 사건조작… 국정원, 경기도, 통일부, 북측 공문이 반박 증거

대북송금사건이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서가 또다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리호남은 없다’의 완결판입니다.

지난 28일 시민언론 뉴탐사가 공개한 문서는 북한이 경기도에 2019년 아태평화대회 참석자를 통보한 공문이며, 북한이 직접 작성한 이 문건에도 ‘리호남’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참석자는 리종혁, 박명철, 송명철, 박철룡, 조정철, 리근영 등 총 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통일부 공식 문서 내용과 일치하며, 그간 국정원과 경기도 문서, 대회 참석자들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리호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리호남은 이른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호남을 봤다는 사람은 이제 김성태 단 한 명입니다. 모든 증거가 ‘리호남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호남의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2022년 수원지검이 진행한 안부수 피의자 조사 기록에도  
리호남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리호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리호남이 어떻게 필리핀에 입국해 김성태에게 돈을 건넸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현 정권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성태를 숙주 삼아 허위로 조작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무고한 국민을 허위와 조작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달려드는 정치검찰과,

국민이 부여한 국가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폭압적이고 무도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